

Psalm 131
Pastor Bo Brady
October 27, 2024

**My heart is not proud, Lord,
my eyes are not haughty;
I do not concern myself with great matters
or things too wonderful for me.**

2

**But I have calmed and quieted myself,
I am like a weaned child with its mother;
like a weaned child I am content.**

3

**Israel, put your hope in the Lord
both now and forevermore. Psalm 131**

This psalm is short and it is deeply meaningful. But it is a text that requires some study and some looking-beneath-the-surface in order to understand it. For those for whom it was written, for the children of Israel as they sang, the imagery would have made a great deal of sense. For us, it requires a little more understanding. (Like some of our phrases today wouldn't make sense to them)

Let's talk for a moment about how we know God. Mostly, it's through language and experience. We know him through relationship. I also know my husband through relationship and if I wanted to describe him to you, I could use relationshipy terms and those would often flow into metaphor. We're like two peas in a pod. We're like hand in glove. If we talk about an aspect of our relationship that is intangible and invisible, like TRUST, perhaps - we would use the idea of a bank account with deposits and withdrawals and we would say our trust account is full. We often draw concrete meaning of abstract things by using metaphors. And in the Bible, metaphors are often used to describe the character and nature of God and man.

The greek root of the word metaphor means "to carry across" - or to get from one place to another. One scholar I follow says the paradox in this is that all metaphors by necessity walk with a limp. They can never tell us exactly what we're wanting to know, but they can get us closer. Donald Braun says, "That which is belittled in plain speech finds the respect is warrants in the subtleties of metaphor." So metaphor is the language we turn to when trying to speak of God and our relationship to Him.

Psalm 131 is rich with metaphor and while the metaphors may feel awkward on our tongue and they may limp a little in our 21st century context, it's imperative that we understand them and that we let them carry us to a clearer view of both God and of our own hearts.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주님,
내 눈은 거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큰 일이나
내게 너무 놀라운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가라앉히고 평온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젖 떼 아이와 같습니다.
젖 떼 아이처럼 나는 만족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시편 131

이 시편은 짧지만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연구와 깊은 탐구가 필요합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사람들, 즉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노래할 때 그 이미지들은 큰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어떤 표현들이 그들에게는 이해되지 않을 것처럼요.)

잠시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주로 언어와 경험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그를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을 관계를 통해 알며, 그를 설명하고 싶다면 관계적인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종종 비유로 이어지곤 합니다. 우리는 두 개의 완두콩처럼 같습니다. 우리는 손과 장갑처럼 같습니다. 우리의 관계 중 무형적이고 보이지 않는 측면, 예를 들어 신뢰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우리는 은행 계좌의 입출금 개념을 사용하며 우리의 신뢰 계좌가 가득 차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비유를 사용하여 추상적인 것의 구체적인 의미를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비유가 하나님의 성격과 본질, 그리고 인간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비유'라는 단어의 그리스어 어원은 '옮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따르는 한 학자는 이 비유의 역설은 모든 비유가 필요에 따라 절름발이로 걸어간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비유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전달할 수는 없지만,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도널드 브라운은 “명료한 언어로 경시되는 것은 비유의 미세한 차이에서 존중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비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언어입니다.

시편 131은 비유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비유들이 우리의 혀에서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21세기 맥락에서 다소 절름거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더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이끌리게 해야 합니다.

There are two primary themes here. The first is in the first verse:

**My heart is not proud, Lord,
my eyes are not haughty;
I do not concern myself with great matters
or things too wonderful for me. Psalm 131:1**

My heart is not proud and my eyes are not haughty. I can't think of a time when I have described someone, or even myself, as having "haughty eyes" but when we study into the meaning of this term, we uncover a culprit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IN fact, I don't think culprit is a big enough word - though maybe it was in 1000 BC Jerusalem, it's not big enough for 2024 in America. It's more of a toxin or a poison and the issue is: *ambition*.

My heart is not proud, my eyes are not haughty - I do not concern myself with great matters our things too wonderful for me is a sentence that layers up this idea that some things are meant, by God's design, to be out of our reach. Some things that we strive for are not an actual DREAM to be realized because we worked hard and frantically and capably - they are a distraction that keeps us from seeing and understanding the REAL dreams of God's heart for our lives. Ambition that pushes us beyond our limits of mental, physical, spiritual or relational health is a dangerous and seductive drug. Across the timeline of human history and in the pages of every sentence of the Bible, the way of faith deals with realities that are present in any time and any culture. Bu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eras and locations or cultures that cause significant turbulence and turmoil -and that happens when something called out as a dangerous stumbling block in the Bible becomes an approved feature in our current culture. Listen to Eugene Peterson on this:

"Christians have a stumbling block put before them that is hard to recognize for what it is, for it has been made into a monument, gilded with bronze and bathed in decorative lights. It has become an object of veneration. But the plain fact is that it is right in the middle of the road of faith, obstructing discipleship. For all its fancy dress and honored position, it is still a stumbling block.

I believe, and I think this psalm confirms, ambition has become this for us in America. We don't discourage it, we reward the constantly reaching. We build monuments to people who sacrificed everything on the altar of their own ambition. This temptation is not new : It's as old as Satan being cast out of heaven (Isaiah 14:12-14). Greek mythology also gives us the fable of Tantalus - cursed for his sins to stand just beneath the branches of a tree who's fruit is always out of reach for all eternity. The temptation isn't new - but what is new is our deep admiration of it and the applause it receives.

We live in a world that prizes influence and power and wealth and fame more than most things and we have largely erased God from the list of admired pursuits. (College and Fred Meyer lady: Theology.) **TEACH: Aspiration vs. ambition.**

여기에는 두 가지 주요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주님,

내 눈은 거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큰 일이나

내게 너무 놀라운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시편 **131:1**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은 거만하지 않습니다. 나는 누군가, 심지어 나 자신을 “거만한 눈”을 가진 사람으로 묘사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용어의 의미를 깊이 연구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문제의 원인”이라는 표현은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00년 BC** 예루살렘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2024년** 미국에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독소 또는 독과 같은 것이며, 문제는: 야망입니다.

“내 마음은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은 거만하지 않다. 나는 큰 일이나 내게 너무 놀라운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문장은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설계에 의해 우리의 손이 닿지 않도록 되어 있다는 생각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미친 듯이 노력하고, 능력 있게

쟁취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 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을 위해 품고 있는 진정한 꿈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물입니다. 정신적, 신체적, 영적 또는 관계적 건강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야망은 위험하고 유혹적인 약물입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과 성경의 모든 문장 속에서, 믿음의 길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는 현실을 다룹니다. 그러나 시대와 장소 또는 문화에 따라 중요한 **turbulence**와 혼란을 일으키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험한 걸림돌로 지적된 것이 현재 문화에서 승인받는 특징이 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유진 피터슨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무엇인지 인식하기 힘든 걸림돌을 마주하게 되며, 그것은 동상처럼 만들어지고, 청동으로 도금되고, 장식 조명으로 비춰집니다. 그것은 존경받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믿음의 길 한가운데에 있어 제자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과 존경받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걸림돌입니다.”

나는 미국에서 야망이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보상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에게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 유혹은 새롭지 않습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만큼 오래되었습니다 (**이사야 14:12-14**). 그리스 신화에서도 탄탈로스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히 손이 닿지 않는 과일 나무 아래에서 서 있도록 저주받았습니다. 유혹은 새롭지 않지만, 새로운 것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깊은 존경과 받는 박수입니다.

우리는 영향력, 권력, 부, 유명세를 대부분의 것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하나님을 존경받는 추구 목록에서 크게 지워버렸습니다. (**대학과 프레드 마이어 여성: 신학**) 가르침: 열망 **vs.** 야망.

The second thought comes in the form of an actual metaphor.

**But I have calmed and quieted myself,
I am like a weaned child with its mother;
like a weaned child I am content. Psalm 131:2**

We see here a calm, quiet child. Near its mother, but not desperately clinging or crying for more. Calmed in the original language means “to make even or to level”. I’ve leveled my crazy, swirling emotions and evened out my desires. Quietened = contented. A weaned child understands that though its mom is no longer its only source of sustenance, her presence is enough. It brings calm and hope and help. **TEACH: Emotions- directing vs. driving**

We can see how these two phrases work together. I have been working and reaching and stretching to get to something that feels elusive ...I feel like a failure when it seems the fruit is always just out of reach and I feel drunk on

my own success when I manage to drop one in my basket. But then...I remember that I am not alone and I am not my own. I belong to a good parent who provides and supports and LOVES me. And that brings a leveling to the emotions that want to spin me out of control. Paul talks about it beautifully:

I rejoiced greatly in the Lord that at last you renewed your concern for me. Indeed, you were concerned, but you had no opportunity to show it. I am not saying this because I am in need,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 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Philippians 4:10-13

두 번째 생각은 실제 비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가라앉히고 평온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는 젓 떼 아이와 같습니다.

젓 떼 아이처럼 나는 만족합니다. 시편 **131:2**

여기서 우리는 차분하고 조용한 아이를 봅니다. 어머니 가까이 있지만 절실하게 매달리거나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라앉히다”는 원래 언어에서 “평평하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는 감정을 평평하게 하고, 내 욕망을 고르게 하였습니다. “조용하게 하다”는 것은 “만족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젓 떼 아이는 더 이상 어머니가 유일한 양식의 원천이 아님을 이해하지만,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평안과 희망, 도움을 가져옵니다. 가르침: 감정 - 방향을 정하는 것 **vs.** 감정을 지배하는 것

이 두 구절이 어떻게 함께 작용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달기 위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열매가 항상 손이 닿지 않는 것 같아 실패감이 들고, 하나를 바꾸기에 담으면 내 성공에 취해버립니다. 하지만 그때... 나는 혼자가 아니며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공급하고 지원하며 나를 사랑하는 좋은 부모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것이 나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들고 싶어하는 감정을 평정시켜 줍니다. 바울은 이를 아름답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 것은 마침내 너희가 나를 생각해 주신 것이다. 너희가 걱정했지만 이를 나타낼 기회가 없었던 것이다. 내가 필요한 것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필요할 때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풍족할 때가 어떤 것인지 안다. 나는 배부르든 굶주리든, 풍족하든 부족하든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나는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10-13**

